

SVB 위기로 은행 폐쇄 확산돼 변동성 커질 수도

정부·한은, 경제·금융수장 회의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신속 대응
금융당국 “국내 시장 영향 제한적”

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은행 폐쇄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형 금융감독원장, 이승현 한국은행 부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금융 수장들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관련 정례 간담회를 열고 SVB 사태의 국내 영향을 점검했다.

이들은 간담회 후 “이번 미국 SVB의 유동성 위기가 은행 폐쇄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아직은 이번 사태가 미국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금융 긴축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경제 등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은 관련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부작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국내 은행의 경우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게 없고 자본 건전성도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SVB 폐쇄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험회피 강화, 외인자금 유출 영향이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SVB와 사업 모델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이번 사태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 인상을 제한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런 면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SVB 사태가 국내 은행과는 관련이 없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국내 대응 상황을 재점검할 예정이

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예금 구조는 예금보장 한도가 높은 도매액이 크지 않고 채권 비중이 큰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은행 중에 SVB나 실리콘밸리에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있는 곳도 없어 시장 전반의 영향은 없다”면서 “하지만 각국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점검할 것으로 보여 우리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공정위, 은행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조사

6개 은행 확보 자료 검토
‘무리한 조사’ 역풍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 진술을 듣고, 필요하면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4일간(공휴일 제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

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은행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서 은행 수수료와 대출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료와 대출금리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은행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정위는 방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가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은행 간 담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조사의 관건이다.

이번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은행들을 압박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참고 자료를 내고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로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조사에 나서 혼란을 부추겠다는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면밀한 조사로 담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광주조달청장, 광주환경공단 방문

혁신제품 시범사용 상황 점검

광주지방조달청은 최근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인 광주환경공단을 방문해 시범사용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해 수요 기관에 제공하고, 시범사용 후 그 결과를 피드백 함으로써 기술개선 및 성능향상을 유도해 후속 구매의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환경공단에서 시범사용 중인 주식회사 케이시스의 ‘고효율 LED안내전광판’은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등을 획득한 제품으로써 자체전력 제어기능을 탑재해 대기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광주환경공단은 시범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실제 사용 효과,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된 시범사용 완



노배성 광주조달청장은 최근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인 광주환경공단을 방문해 시범사용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광주조달청 제공

료보고서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조달청은 최종 시범사용 결과(성공, 보류, 불량)를 판정한다.

노배성 광주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판로개

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달 현장에 숨어있는 각종 그림자 규제 138건을 찾아내 개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광산업진흥회, ‘OFC 2023’ 서 1,176만달러 수출계약

관련 기업 20개사 공동관 운영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최근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OFC 전시회’에 국내 광관련 기업 20개사와 함께 공동관을 운영하고 1,176만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이뤘다.

12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존 전통적인 광통신 제품이 아닌 디지털전환시대에 맞춰 반도체, AI, 에너지, 차

세대 통신과 타 산업의 핵심요소 기술인 파장가변 광트랜시버, 광단면 자동검사 시스템 등 미래 유망 광융합 신기술을 선보였다.

그 결과 현지 해와 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아 전시회에 참가한 훈민솔루션(주) 오석훈 대표는 “광단면 자동검사 시스템”을 통해 일본 바이어를 초청, 150만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무송지오씨(주)박인철 대표도 500만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한국관을 방문한 전세계 바이어들을 오는 11월에 광주에서 열리는 ‘2023 국제 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에 초청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 단장으로 참가한 김동근 상근부회장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알리겠다”며 “광융합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여성 벤처기업계 역량 강화 앞장”

김현화 여성벤처협회장 취임

김현화 ㈜이지아이스 대표이사(사진)가 최근 (사)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창립 당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부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협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중요한 시점에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우리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가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길 기대합니다”며 “여성기업인중 및 벤처기업인중 제도 활성화와 회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역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전국으로 우리 협회의 활동영역을 넓혀나



갈 것”이라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지연 전 회장은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준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혁신하고 나아가는 협찬 협회의 역사를 응원하겠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는 여성벤처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12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성장과 여성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해 국내 벤처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홍승현 기자

신보 호남영업본부, 매출채권보험 인수

호남 소재 중소기업에 8,094억
손실금 최대 80%까지 보상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이하 신보)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안정성 담보를 위해 호남 소재 중소기업에 약 8,094억원의 신규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신보는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또한 이 제도는 가입된 매출처의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주는 신용관리

기능도 겸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이기도 하다.

신보 관계자는 “광주신용보험센터 등을 통해 작년 한해 동안 1,524개의 지역 중소기업들이 약 1조 6,000억원의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했다”며 “급격한 경기 위축, 금리상승으로 인한 거래처 부도 가능성 증가 등을 이유로 최근 중소기업들의 매출채권보험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보는 호남지역 매출채권보험 이용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광역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동시에 각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보 홈페이지나 광주신용보험센터(062-607-9261)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지현 기자

소진공, 혁신이끄미 참여 ‘혁신뽕개기’ 워크숍

실무자 특강으로 혁신 의지 다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공단 내 혁신선도 주체인 혁신이끄미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뽕개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혁신이끄미란 소진공 내 혁신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신설된 조직으로, 각 본부별로

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직무역량이 우수한 20~30대 4~5급 실무자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소진공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자를 초빙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특강으로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도출된 아이디어는 공단 혁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최우수 혁신이끄미에게는 과감한 포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